

제 목

Brexit 관련 긴급 EU 정상회의 결과

- ◆ EU 27개국 정상들은 익일까지 이어진 **긴급 정상회의**에서 영국의 EU탈퇴 시한을 **금년 10월말까지 추가 연장**하되 동 기간중 **영국 의회**가 탈퇴 협정을 **승인**하면 **즉각 탈퇴**를 인정(flextension)하기로 하였으며, **6월중 진행 상황을 점검**(review)하기로 결정
- ◆ 언론과 투자은행들은 예상대로 No-Deal Brexit 자체는 회피되었다고 평가하면서, 총리 사퇴 등 **정치적 불확실성 확대**를 우려

I

Brexit 관련 긴급 EU 정상회의 결과

- EU 27개국 정상들은 익일까지 이어진 **긴급 정상회의**(4.10~11일)에서 영국의 EU탈퇴 시한을 금년 **10월 말까지 추가 연장**하되, 동 연장 기간 중 영국 의회가 EU탈퇴 협정을 **승인**하면 시한에 관계없이 **즉각 탈퇴**할 수 있게 하는 **탄력적 연장안**(flextension)을 제시(현지 시각 4.11일 02:20 발표)
 - 아울러 EU의회 회기가 새롭게 시작되기 전인 금년 6월중 진행 상황을 **점검**(review)할 계획
 - 당초 3.29일이던 탈퇴 시한이 영국측 요청으로 **4.12일로 한 차례 연기***된 바 있으며, 최근까지 영국 하원이 합의안 승인을 거부하자 정부는 탈퇴 시한을 **6월말로 재연장**해 줄 것을 EU측에 **요청**한 상황(하원도 연장 요청에 동의)이었음(<참고1> 「최근의 Brexit 관련 진행 경과」 참조, 5쪽)
 - * EU측은 3.21일의 탈퇴시한 1차 연기 시, ①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3.29일까지 승인하면 5.22일로 탈퇴시한을 연기하되 ②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4.12일로 탈퇴시한을 연기하고 향후 탈퇴 추진계획을 EU측에 제시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
 - 회의 직전 언론에 알려진 초안은 **탈퇴 시한을 장기**(예. 1년) **연장**하고 영국 **의회 승인시 즉시 탈퇴**를 보장하는 방안이었으나, 양일간 회의에서 **프랑스** 등의 **주장**을 반영하여 **연장 기간이 축소**된 것으로 알려짐
- EU측의 결정 직후 **May 총리**는 4.11일 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의회 승인을 받아 **Brexit Deal**을 **조속히 달성**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

II | 향후 진행 방향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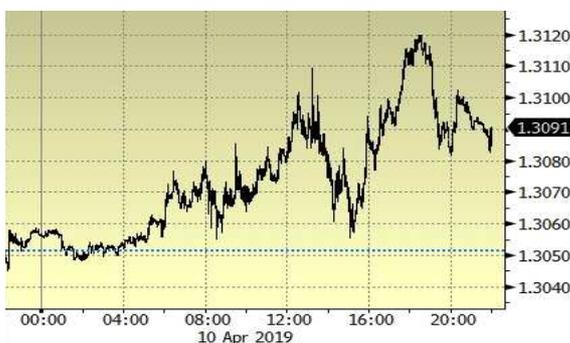
- 10월말로 탈퇴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짧은 데다, 유럽 의회 개회 전(6월말)에 EU 탈퇴를 종결짓고 EU에 장기간 잔류하는 것을 막겠다는 May 총리의 계획과도 상이하여 **상당한 정치적 불확실성**이 잠재(<참고2> 「유럽의회 구성」 참조, 6쪽)
- **May 총리**는 당분간 노동당과의 **초당적 협상**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측 EU탈퇴 수정 합의안을 도출한 뒤 **의회 승인**을 받도록 노력할 전망
 - 영국 정부와 노동당은 오늘(4.11일)부터 **협상**을 **재개**할 계획인데, 의석 분포 상 **노동당**이 정부안을 **지지**하게 되면 정부안에 대한 **의회 승인**은 무리없이 달성될 수 있음
 - 정부는 탈퇴 협상안 중 **탈퇴협정**(Withdrawal Agreement) 부문만 **우선 협상**하여 노동당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추가적인 요구 사항은 미래관계 정치선언(Political Declaration) 부분에서 수정하여 반영하겠다는 의도임
- 그러나 보수당 내 **反EU 강경파**가 정부측 협상안과 노동당의 관세동맹 잔류안에 **반대**하는 데다 스코틀랜드국민당, 민주연합당 등 **군소 정당**들도 **연대**하여 정부안에 **반대**하고 있어 **상당한 진통**이 예상
 - 특히 May **총리의 사퇴**를 요구하는 보수당 **평의원**들의 의견이 결집되고 있고, 탈퇴시한 연장으로 **Brexit**가 **무산**될 것을 **우려**하는 의원들의 반대 움직임도 조직화되고 있어 **May 총리 퇴진** 및 **조기총선**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**상당함**
 - May 총리는 작년 12월 12일 실시된 보수당 내 신임투표에서 승리하였으므로 절차상 향후 1년간 당내 불신임이 재개될 수는 없으나 평의원들의 **사퇴 압력**이 집중될 경우 **정치적**으로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
 - 1차 의향투표(3.27일) 직전 May 총리가 EU탈퇴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전제로 총리직 사퇴 등을 표명하면서 총리의 **정치 리더십**이 크게 약화된 만큼, 정치적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**총리직 사퇴**가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는 주장도 정치평론가들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음

- 또한 탈퇴 시한이 **상당 기간 연장**됨에 따라 Soft Brexit, 총리 사퇴, 제2차 국민투표, No-Deal Brexit, Brexit 철회 등 **다양한 진행 방향**이 **재부각**될 수 있고, May 총리 사퇴 후 선출된 **신임 총리**가 EU측과 **새로운 협상**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**정치적 혼란**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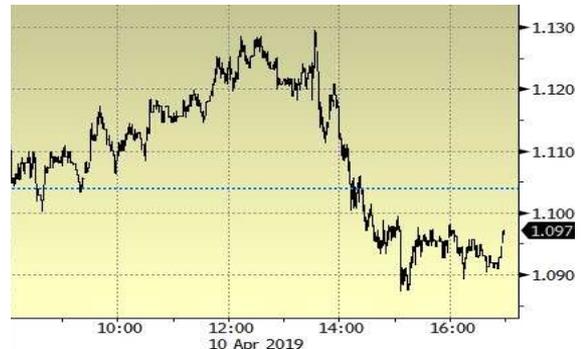
Ⅲ 주요 언론 및 금융시장 반응

- 주요 **언론**들은 금일 EU 정상회의의 탈퇴 시한 연장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는 짧았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**전개 방향**을 **신중히 전망**
 - EU측이 제시한 연장 기한은 Brexit 관련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만큼 충분히 길지 않고, 영국 하원의 승인을 압박할 정도로 짧지도 않지만 보수당의 **총리 교체**를 추진하기에는 **충분한** 기간이라고 평가 (BBC)
 - Brexit 연장 기간 동안 EU 이사회 의장 선출 등 유럽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정에 **영국**이 **참여**하는 것을 **반대**하는 **프랑스**의 요구를 반영하여 연장 기한이 예상보다 짧게 설정 (Telegraph)
 - 보수당 내 총리 교체 움직임이 거세지겠으나 May 총리가 지난해 신임투표에서 승리한 바 있고 정부 협상안이 의회 승인을 받지도 못한 상황이므로 **총리직**에서 **자진 사퇴**는 **하지 않을 것**으로 전망됨 (Guardian)
- 금일 **파운드화**(US\$/£)는 Brexit 장기연장 기대로 **상승**했다가 EU 정상회의 개최 직후 **반락**하면서 상승폭이 축소 마감(전일 1.3052 → 1.3091, 0.3%)
 - EU 정상회의 개최 전 마감된 영국 **금리**(국채 10년물 기준)는 Brexit 연장 기대 등으로 상승했다가 드라기 ECB 총재의 dovish한 발언 등의 영향을 받아 반락하여 전일대비 **1bp 하락** 마감

파운드화 환율



영국 국채(10년물) 금리



- **주요 투자은행**들은 5.22일전에 의회가 정부의 탈퇴협상안을 승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정부가 제시한 기한보다 장기로 연장이 결정되면서 May 총리 퇴진, 조기총선 등 정치적 **불확실성**이 **확대**되었다고 지적
 - 금번 장기 연장 결정으로 보수당 내 반EU 성향의 의원들이 **May 총리 퇴진**을 요구하고 **후임 총리**를 통해 EU와 **재협상**을 추진하거나 연장기한에 임박하여 Hard Brexit을 재차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짐 (JP Morgan)
 - 향후 영국 정부와 노동당의 협상은 **Soft Brexit** 방향으로 진전되겠지만 Brexit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여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의 **합의 도출도 어려울** 전망 (BOA)
 - 예상대로 EU가 탈퇴 시한을 연장하였으나 영국 정부는 노동당의 관세동맹 잔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결국 **조기총선**이 실시되면서 현재의 Brexit 관련 **교착상태**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 (Mizuho)
 - 기한 재연장에도 불구하고 북아일랜드 국경관련 안전장치(backstop) 유지 기한 연기 등과 같은 중요한 진전이 없는 한 정부 협상안의 **의회 승인은 쉽지 않으며** May 총리가 요구한 연장기한(6월말)보다 장기로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**총리 퇴진 요구**도 확대될 전망 (Citi)

<참고1>

최근의 Brexit 관련 진행 경과

- 18.11.25 : 영국 정부와 EU 탈퇴 협정 합의
- 19. 1.15 : 정부의 EU탈퇴 합의안에 대한 제1차 하원 승인투표 부결(230표차)
- 19. 3.12 : 정부의 EU탈퇴 수정 합의안에 대한 제2차 하원 승인투표 부결(149표차)
- 19. 3.13 : No-Deal Brexit 여부를 묻는 정부안에 대한 하원 투표 부결(43표차로 No-Deal Brexit 반대)
- 19. 3.14 : 하원의 Brexit 연장안 투표 가결(229표차) - 동 투표 결과에 의거 May 총리는 EU측에 6월말까지 약 3개월의 시한 연장을 요청
- 19. 3.21 : EU 정상회의에서 EU측은 조건부 탈퇴 시한 연장안 제시 - (i) 영국 의회가 3.29일까지 합의안을 승인하면 5.22일까지 EU탈퇴 연기, (ii)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4.12일까지 탈퇴를 연기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EU측에 제시
- 19. 3.25 : 의회(하원)가 Brexit 진행을 주도하고 이를 위해 의향투표(Indicative Vote)를 통해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의 의원 결의안 가결(27표차)
- 19. 3.27 : 제1차 의향투표에서 상정된 8개 안건 모두 하원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
- 19. 3.29 : 정부의 EU탈퇴 수정 합의안에 대한 제3차 하원 승인투표 부결(58표차)
- 19. 4. 1 : 제2차 의향투표에서 상정된 4개 안건 모두 하원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
- 19. 4. 3 : 제3차 의향투표에서 상정된 4개 안건 모두 하원의원 과반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였고, 의회는 추가 의향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
- 19. 4. 3 : May 총리가 Brexit 대안 마련을 위해 Corbyn 노동당수에게 초당적 협력을 제안하고 협의를 개시
- 19. 4. 5 : May 총리는 EU측에 6월말까지 약 3개월의 시한 재연장을 요청
- 19. 4. 8 : 영국 의회(상하원), EU탈퇴 시한을 6.30일로 연장 요청하는 법안을 입법
- 19. 4.10 : Brexit 관련 긴급 EU 정상회의 개최

<참고2>

유럽의회 구성

- 유럽의회(European Parliament)는 EU의 입법기관으로 입법, 예산, 감독 등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
 - 유럽의회는 법안을 발의할 수 없으나 이사회(council of ministers, 현 이사회 의장 : Donald Tusk, 폴란드)와 공동으로 EU 집행위원회(commission)가 제출한 법안을 수정 또는 거부할 수 있어 EU의 최종 입법기구 역할
 - EU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 등 여타 EU 조직에 대해 업무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감독·통제권한 수행
 -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위원장(President of the Commission, 현 위원장 Jean-Claude Juncker, 룩셈부르크)을 선출하는 한편, 집행위원(commission member) 임명승인 및 불신임권을 보유
 - 예산 측면에서는 이사회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, EU 예산안은 의회 동의를 거쳐야 확정됨
- 유럽의회에서는 개별 국 정당들이 자신의 이념, 정치목표 등에 따라 범국가적인 정치그룹(political group)을 구성하여 활동
 - 정치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/4이상 회원국(현재 7개국)의 25명 이상의 의원이 필요한데, 현재 8개의 정치그룹이 활동하면서 좌·우파를 비롯한 유럽내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반영하고 있음
- 금년 6월말 회기가 만료되는 현재 유럽의회는 총 751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별로 사전에 의석 수가 할당
 - 국가별 의석수는 기본적으로 국가별 인구에 비례하되 인구가 적은 회원국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조정이 있으며 국가당 최소 의석수(6석, 키프로스, 에스토니아, 룩셈부르크, 몰타) 및 최대 의석수(96석, 독일) 제한이 있음
 - 독일(96석), 프랑스(74석), 이탈리아(73석), 영국(73석), 스페인(54석) 등 국가가 의석수가 높음
- 한편 영국의 EU탈퇴 등을 고려하여 2019.7월 시작되는 회기부터 총 의석수가 705석으로 줄어들(△46석) 예정인데, 최대 의석수 제한에 걸린 독일을 제외하고 프랑스와 스페인의 의석수가 각각 5석씩 증가하여 의회내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
 - 일부 정치평론가는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프랑스가 영국의 EU탈퇴 시한 연기에 상당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